

은퇴머니 | 2026년 10월 영상 기준

영상 자료

은퇴 포트폴리오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생활과 원칙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자가배당과 분배금은 편리함과 부담이 다릅니다

비교 기준	직접 팔아 쓰기 , 자가배당	분배금을 받아 쓰기
장점	매도 시점, 금액을 본인이 결정 과세 상품은 실현 이익과 세금 계획 가능	생활비 때문에 매달 직접 팔 필요가 줄어들어 지급되는 현금을 생활비에 보탬 수 있음
부담	하락장에도 생활비가 필요하면 팔아야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음	지급 시점, 금액과 과세를 내가 정하기 어려움 분배금이 줄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음
함께 확인	상품, 투자 계좌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름	세후 실수령액과 분배금의 지속 가능성

각각의 부담까지 생각해서 본인이 꾸준히 실행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받은 분배금과 남은 자산을 함께 봅니다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펀드 안의 자산이 빠져나갑니다. 직접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기 전에

이번 달 받은 돈과 남아 있는 자산의 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월 분배금의 금액과 지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분배금은 계좌 밖에서 새로 생기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원금을 쓰는 것도 본인의 은퇴 계획입니다

구분	내가 정할 기준
생활비로 쓸 돈	평소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
큰 지출에 쓸 돈	목돈이 필요한 계획과 그 시점
남겨 두고 싶은 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와 보유 목적

원금 보존을 모두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생활을 먼저 정합니다. 원금을 일부 쓰더라도 내가 계획한 지출이면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은퇴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배금 총액과 과세표준액을 구분합니다

확인 항목	뜻과 확인 방법
주당 분배금	운용사가 공시하는 1주당 지급 금액
주당 과세표준액	분배금 가운데 과세 대상으로 공시한 금액
수익의 과세 구분	국내 주식 배당 수익은 과세 대상.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은 과세 이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음
실제 계좌의 세금	보유 기간 중 과표기준가 변화도 반영되므로 증권사의 과세 내역을 함께 확인

과세표준액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대상 금액입니다.

메모

이 과세 설명이 적용되는 상품 범위

이 설명은 국내 주식과 국내 장내 옵션을 활용하는 상품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까지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한 달의 과세 비중으로 세금, 건보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세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 집중되는 달에는 과세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인 달도 가능합니다.

내 조건을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됩니다.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본인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운용사의 분배금, 과세표준액 공시 → 증권사 과세 내역 → 본인의 건강보험 조건 순서로 확인합니다.

지금 잘 쓰는 전략의 특성과 부담을 이해합니다

받는 것과 감수하는 것

옵션을 팔아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을 매도한 부분의 상승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 하락 손실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품별 차이와 내 목적

옵션 매도 비중과 방식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의 현금흐름이 중요한지, 앞으로 자산 성장도 더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커버드콜로 생활비를 잘 마련하고 있다면 그 경험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상품 수를 늘리는 데서 시작하지 말고, 지금 구성에서 무엇을 보완하려는지부터 정합니다.

내 구성은 현금흐름과 남은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할 질문	생각할 기준
생활비가 충당되는가?	받는 분배금이 필요한 생활비를 채우는지
세후에도 충분한가?	과세와 건강보험 조건을 반영한 실수령액
자산은 어떻게 변하는가?	받은 분배금과 남은 자산의 변화를 함께 보기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	하락 위험, 상승 참여 제한, 생활비 부족 가능성
보완할 역할은 무엇인가?	현금흐름, 성장, 큰 지출 등 내 목적에서 출발하기

잘 쓰고 있는 전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역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포트폴리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시장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왜 이 자산을 보유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구성을 선택했는지 돌아볼 기준을 둡니다.

생활 조건이 바뀔 때

소득, 지출과 원하는 생활이 바뀌면 원칙과 구성도 검토합니다. 다른 자산의 급등을 따라가는 선택과 구분합니다.

정답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본인이 세운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투자자로 살아남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시리즈는 모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대신, 은퇴자의 상황에서 구성을 정할 때 생각해 볼 재료를 제시합니다.

공식 근거와 이용 안내 (1/2)

2026년 10월 3일 확인.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과세, 건강보험 적용은 상품, 계좌, 소득과 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과거 분배금과 수익률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배금, 과세 비중

<https://www.samsungfund.com/etf/lounge/notice-view.do?no=66733>

집합투자기구 과세, 제26조의2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93>

건강보험 소득, 시행령 제41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28>

공식 근거와 이용 안내 (2/2)

2026년 10월 3일 확인.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과세, 건강보험 적용은 상품, 계좌, 소득과 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과거 분배금과 수익률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시행규칙 별표 1의2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29>

커버드콜 전략의 위험

<https://www.globalxetfs.com/articles/understanding-the-income-landscape-for-options-strategies-2>

분배락, 삼성증권 ETF MAP

https://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2Fpdf&fileName=3020%2F2024111812055765K_02_02.pdf&inlineYn=Y&saveKey=research.pdf

내 생활과 원칙에 맞는 포트폴리오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원칙과 그 원칙에 따른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수 ETF와 자가배당, 원금을 쓰는 선택, 국내 커버드콜의 과세표준액, 커버드콜 중심 운영, 포트폴리오 원칙

원본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T1BezmyM8>

포트폴리오 시리즈 재생목록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gly5lnHnnc>